

축구남북전

2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186호

많은 게 많았던 벤투호 평양 원정

- 1 승점 3점 획득 불발
- 2 장거리 이동 피로감
- 3 팬들 보는 재미 상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평양 원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1990년 남북통일대회 이후 축구대표팀의 29년만의 평양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지만, TV 생중계가 되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취재단, 응원단 파견이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심지어 김일성경기장에서는 단 1명의 관중, 외신 기자도 없었다. 경기 소식은 경고, 교체 등을 알리는 문자가 전부였다. 2019년에 이뤄진 경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축구대표팀과 팬들에게는 남은 것 하나 없는 한판이었다. 낮은 환경에서 펼쳐진 경기라고 하지만, 0-0 무승부라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차이(한국 37위·북한 113위)에서 알 수 있듯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축구대표팀은 정예 멤버가 나섰음에도 승점 3을 얻지 못했다.

축구 팬들은 '보는 재미'를 상실했다. 최소 중계만 됐더라도 김일성경기장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마냥 기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축구 팬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사무실에서 평양 현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담은 등나름대로 애를 썼다.

경기를 땀 선수들은 피로도가 적지 않았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육로 이용 시 편도 3시간 남짓한 거리지만 인천공항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 귀국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선수단은 17일 이른 새벽에야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이동거리와 시간 등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어지간한 원정 못지않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유럽, 중동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표팀 소집 전후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더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번 북한 원정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한판이었다. 야니, 선수와 팬 모두 잃은 것이 더 많은 경기였다.

정지욱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매드리가 암배 가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킥 차는 그날까지!

각 경기 예능의 끝판왕

이종TV

이종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

무관중 경기 지켜본 FIFA 인판티노 회장 | FIFA·AFC 후속 조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번거로운 이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5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치른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기가 끝난 뒤 한국(흰색 유니폼)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축구가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더 노력해야”

“역사적 경기에 일반 관중 없어 실망” 인판티노, FIFA 홈페이지 솔직 소감 최종예선서 북한과 같은 조 될 수도 축구협, FIFA·AFC 항의 여부 검토

남과 북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이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렸다. 결과는 0-0 무승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집계한 공식 관중수는 100명. 이날 경기장을 찾은 이들은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49·이탈리아)을 포함한 FIFA 관계자, 대한축구협회와 북한축구협회 관계자, 몇몇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었다. 일반 관중은 전혀 없었다. TV 생중계도 없었다. 경기가 열린 것 이외에 많은 부분이 비정상적이었다.

인판티노 회장은 경기 후 FIFA 홈페이지를 통해 '코리안 더비'를 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경기가 경기장이 가득 찬 상태에서 열릴 것 기대했지만 스탠드에 일반 팬들이 없어 실망스러웠다. TV 중계가 안 되고, 비자 문제로 해외 언론이 북한에 못 들어왔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한 순간에 모든 걸 바꿀 순 없다. 관련 이슈들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한국과 북한의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3차전이 열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북한축구협회 김장산 사무총장(맨 오른쪽부터)을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에 대해 북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다. 축구가 북한을 포함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판티노 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축구협회를 배려해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적지 않게 놀랐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는 정치와의 분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넘지 못한다. 이번

코리안 더비가 그랬다. 정치 논리가 적용됐다. 축구가 볼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원하는 만큼의 원정 인원을 꾸리지 못했다. 당초 60명 정도를 계획했지만 북한축구협회 등과의 협의가 거처 인원은 최종 55명이 됐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엔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정을 준비할 때와 달랐다. 북한축구협회가 메일을 회신하지 않아 AFC가 대신

H조 중간 순위					
순위	국가	승	무	패	승점
1	대한민국	2	1	7	10
2	북한	2	1	7	3
3	레바논	2	1	6	2
4	투르크메니스탄	1	2	3	-1
5	스리랑카	4	0	-14	

북한의 홈경기 개최 의사를 확인해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다. 현장 답사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선수들은 이례적으로 북한 원정을 앞두고 별도의 방북 교육을 받았다. 핸드폰은 아예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 준비 과정도 다른 원정 경기와는 많이 달랐고, 복잡했다. 북한축구협회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대표팀에 다른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해줬는지 의문스럽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원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파악해 FIFA와 AFC에 공식 항의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북한 원정은 끝났지만 최종예선에서도 북한과 같은 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만큼 일찍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FIFA와 AFC에 상세히 알릴 필요는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FIFA와 AFC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계속되는 북한의 몽니... AFC컵 결승전 취재에도 비협조

北 4.25 클럽과 알 아헤드 단판 대결 각국 취재진 비자발급 요청에 무반응

북한축구의 '몽니'는 대체 어디까지일까.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H조) 3라운드 남북전은 세계 축구사에 유례가 없는 '이상한' 경기였다. 경기장 안팎의 소식을 전달해줄 미디어도 없었고, TV생중

계도 없었다. 심지어 북한은 자체 무 관중 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집계한 공식 관중은 100명. 선수단을 제외하고 정몽규 회장 등 대한축구협회 임·직원이 20여명 동행했다는 점과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 등 국제축구연맹(FIFA) 일행이 찾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거주하는 인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는 남북전이 끝이 아니다. 다음달 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2019 AFC컵 결승전에도 '폐쇄성'을 드러냈다. 올해 결승은 북한 4.25 클럽과 알 아헤드(레바논)의 단판 대결로 펼쳐지는데, AFC의 협조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FC 사정에 정통한 축구 인들은 16일 "AFC가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취재신청을 받고 있다. 입국을 비롯한 비자발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축구협회가 전혀 답이 없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대로라면 남북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내 취재진 방북을 불허했던 북한은 FIFA가 '남북전에 맞춰 에디터를 파견하겠다'는 정식 공문을 보냈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취재신청은 AFC의 권한이나 비자발급은 자국 소관이라는 태도다.

다만 AFC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챔피언스리그와 AFC컵 등 국제 클럽 대항전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AFC가 심혈을 기울이는 무대다. 별도의 대회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준수를 엄격히 강조한다. 계속 '몽니'로 일관하다가는 출전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평양 무관중 경기, FIFA·AFC도 몰랐다

북한 측 사전 정보 일체 제공 안해 주민 입장 통제 사전 계획 정황도

평양 남북축구 대결이 일반 관중 없이 치러진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도 무관중 경기를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

린 한국과 북한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H조 3차전에는 일반 관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평양에서 열린 사상 첫 월드컵 예선에서의 남북 대결은 축구 관계자들과 내빈들만 자리한 채 썰렁한 가운데 진행됐다.

16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무관중은 우리는 물론 FIFA와 AFC도 몰랐다더라. 경기 전날 4만 명이라고 했던 예

측만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지에 파견된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김일성경기장 근처에도 축구를 보러온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주민들의 입장 통제를 사전에 계획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수단은 2박3일 간의 짧은 평양 생활 중 대부분을 호텔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과 책마저 소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폭 설 수 있었다. 가져간 재료를 사용하지 못해 식사는 호텔 식당으로 해결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선수

들이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했다. 잠도 많이 잤더라. 호텔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고, 직원들도 꼭 필요한 질문 외에는 답도 잘 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한 차례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로 치열했던 경기는 득점 없이 막을 내렸다. 선수들은 육탄전을 방불케 하는 북한의 플레이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굉장히 격하게 나왔다. 선수들이 '이게 축구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